

2024.08.21.(수) 증권사리포트

코스맥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실적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2Q24 Review: 법인별 온도차가 다른 실적

24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515억원, 영업이익 467억원으로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579억원을 하회하였다. 2분기 실적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전체 성장을 제한했다.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지역에서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① 별도 법인: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 3,482억원(+25% YoY), 영업이익 345억원(+14% YoY)을 기록했다. 특히 직수출 부분이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리오더 비율이 75%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쉬운 점은 매출에서 고수익성 썬 제품의 매출 감소와 대손상각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② 중국 법인: 매출액 1,476억원(-4% YoY), 순손실 11억원(적자전환), 상해법인 매출액 975억원(-14% YoY), 광저우 법인 매출액 495억원(+24% YoY)을 기록했다. 상해 법인은 법인 경기 회복이 더디고, 온라인 채널이 위축되면서 주요 고객사의 매출이 10% 전후로 감소했다. 1분기에 매출 성장에 기여했던 메이크업 인디 브랜드도 2분기에는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 매출 감소로 인한 가동률 저하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③ 미국 법인: 매출액 360억원(-6% YoY), 순손실 96억원을 기록하였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도의 높은 기저 효과가 상실되면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특히, 2분기 매출의 일부가 1분기에 선생산(30억원 추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

④ 대손상각비: 한국과 미국 법인은 주로 특정 거래처의 채권 회수 지연 문제로 대손상각비가 증가했으며, 중국 법인은 보수적인 회계 처리 기준 변경과 일부 과거 회계 처리 정정의 영향을 받았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8,000원으로 하향

코스맥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168,000원으로 하향한다. 3분기 실적은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16% YoY 전망) 및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6,001	17,775	20,863	23,800
영업이익	531	1,157	1,592	2,000
지배순이익	208	571	750	1,049
PER	37.2	20.1	19.3	13.8
PBR	1.3	3.2	3.4	2.8
EV/EBITDA	9.5	8.9	7.9	6.0
ROE	3.6	12.1	19.1	22.4

자료: 유안타증권



슬루엄
 실적은 악화되었지만, 수주 흐름은 바닥을 지나는 중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낮아진 기대치도 하회한 2Q24 실적

2Q24 매출액은 3,939억원(2%QoQ, -25%YoY), 영업이익은 206억원(1%QoQ, -53%YoY)을 기록했다. 매출은 컨센서스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이 하회한 이유는 수익성 높은 ESL 매출이 더 적었던 반면, 저수익성의 3in1보드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파워모듈은 서버용 수요 증가 덕분에, 3in1보드는 디스플레이 고객사 내 침투율 상승과 동사 점유율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매출이 호조를 보인 점이 수익성을 더 높여주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ESL은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수준으로 추가 감소했고, 수익성도 간신히 두 자리 대를 사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ESL 신규 수주 흐름은 바닥을 지난 듯,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 상승

기존 수주 잔고 중에 유럽 고객사들의 요구조건 변경(3 color에서 4 color로 수정)에 따라, 하반기 ESL 매출액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될 전망이다. 올해 동사 ESL 매출액은 4,914억원(-39%YoY)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연초까지 부진했던 ESL 신규 수주는 최근 다시 개선되는 모습이다. 수주잔고는 작년말 1.65조원에서 2Q24말 1.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신규 수주는 4천5백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입찰 진행 중인 해외 대규모 수주건들이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수주잔고는 2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내년 ESL 매출은 9,114억원으로 전망하며, 동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목표주가는 29,000원으로 하향조정하나,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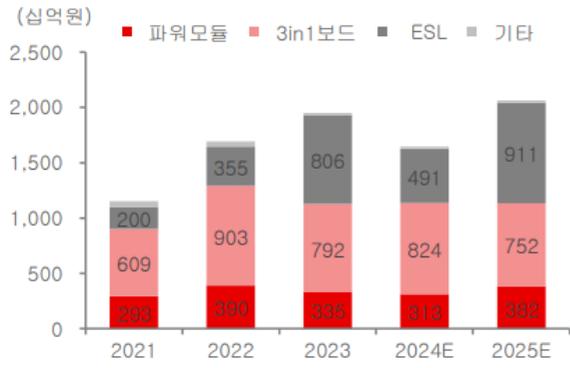
예상보다 낮아진 올해 실적 조정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29,000원(과거 평균P/B 2.9x 적용)으로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동사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ESL 수주 부진은 바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내년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Accumulate 할 때인 것 같다.

Fig. 1: 솔루엠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1,695	1,951	1,646	2,065	2,216
영업이익	76	155	97	154	168
세전이익	50	143	86	139	154
순이익[지배]	47	120	71	116	129
EPS(원)	946	2,407	1,429	2,319	2,571
증감률(%)	246.8	154.4	-40.6	62.3	10.9
PER(배)	18.4	11.3	13.0	8.0	7.3
PBR	2.8	3.2	1.9	1.5	1.3
EV/EBITDA	10.0	7.6	7.9	5.4	4.6
ROE(%)	16.9	34.8	16.4	21.9	19.7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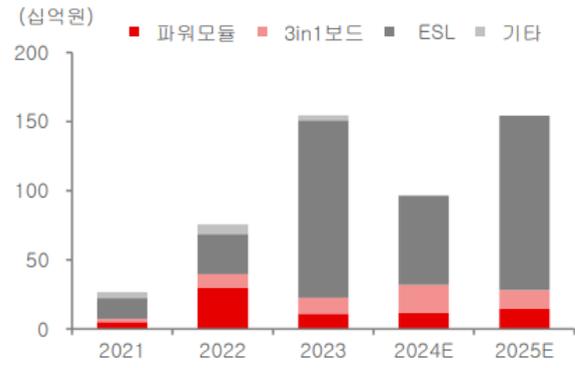
자료: 솔루엠,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솔루엠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솔루엠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두산테스나

모바일 경기 부진에도 차량용칩 성장이 실적 견인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기대치 상회한 2Q24 실적

별도기준 2Q24 매출액은 980억원(11%QoQ, 10%YoY), 영업이익은 187억원(53%QoQ, 3%YoY)을 기록, 컨센서스를 각각 3%, 19% 상회했다. OPM은 19.1%(5.3%pt QoQ)를 달성했다. 고객사 플래그쉽 모델 향 CIS 제품 믹스가 악화(2억화소 감소, 5천만화소 증가)되었으며, 비수기 및 모바일 수요 부진으로 CIS 가동률이 소폭 하락하고 AP 매출이 급감했다. 그럼에도 SoC 내 차량용칩과 SSD 컨트롤러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하였다. SoC 가동률은 80% 초반(vs. 1Q24 70%대 후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량용칩은 90% 가까이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자회사 엔지온의 적자 지속으로 168억원(49%QoQ), OPM 16.8%(4.5%ptQoQ)를 기록했다.

3Q24에도 차량용칩, 컨트롤러 매출 성장이 실적 견인

증설 추진 중이던 차량용칩의 테스트 장비 셋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매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SSD 컨트롤러 매출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 AP 및 CIS 매출 부진을 상쇄할 전망이다. 별도기준 3Q24 매출액은 1,012억원(3%QoQ, 13%YoY), OPM 19.8%로 예상되며, 4Q24는 고객사 플래그쉽 AP 신 모델 생산에 따라, 매출이 17%QoQ 추가 증가하여, 올해도 연간 20%YoY의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목표주가 5만원으로 하향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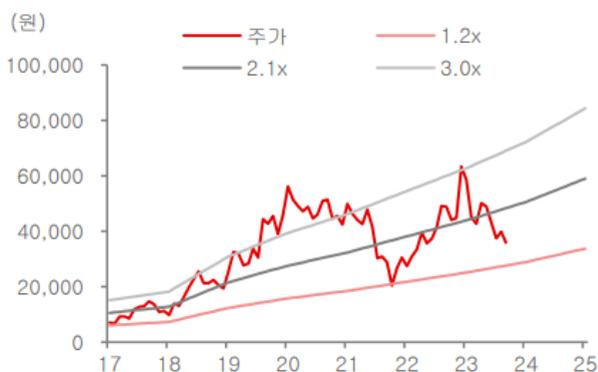
모바일 반도체 수요 둔화와 고객사 System LSI 사업부 실적 악화 장기화 우려를 반영하여, 동사 목표주가를 5만원(mid-cycle P/B 2.1x 적용)으로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신규 사업인 차량용칩 테스트의 성장성 덕분에, 동사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업종 내 Outperform할 전망이다

Fig. 1: 두산테스나 별도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278	339	406	469	544
영업이익	67	61	76	88	107
세전이익	61	45	64	79	102
순이익[지배]	52	49	64	78	105
EPS(원)	3,064	2,839	3,324	4,037	5,414
증감률(%)	11.0	-7.3	17.1	21.5	34.1
PER(배)	9.0	20.6	10.8	8.9	6.6
PBR	1.5	2.8	1.5	1.3	1.1
EV/EBITDA	3.6	5.4	2.9	2.1	1.3
ROE(%)	18.3	13.8	14.8	15.5	17.6
배당수익률	0.6	0.3	0.4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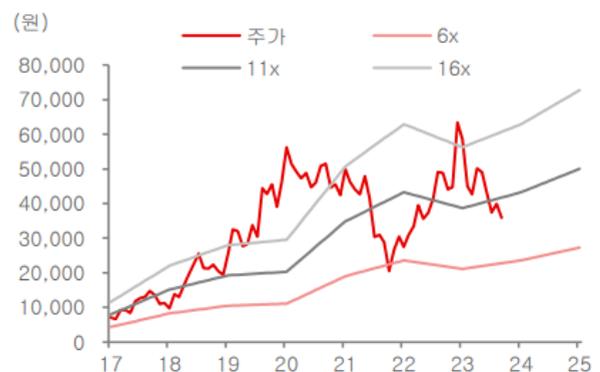
자료: 두산테스나, BNK투자증권 / 주:K-IFRS 별도

Fig. 2: 두산테스나 P/B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두산테스나 P/EBIT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명신산업

고객사의 생산이 바닥을 지나는 중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2Q24 Review: 영업이익률 10.6% 기록

명신산업의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5%/45% 감소한 3,976억원/423억원(영업이익률 10.6%, +6.0%p (YoY))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향 매출액은 8% (YoY) 증가한데 비해 글로벌 EV 업체향 매출액(비중 64%)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생산 감소로 24% (YoY) 감소했다. 미국 법인들 합산 매출액이 20% (YoY) 감소했는데, 텍사스에 위치한 심원북미의 매출액이 9% (YoY) 감소했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심원미국의 매출액도 24% (YoY) 감소했다. 중국 법인들 합산 매출액도 31% (YoY)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대비 6.0%p 하락했는데, 외형 축소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2분기에는 원재료가 하락에 대한 납품가 조정이 늦어져 판가-원가 Spread가 크게 벌어져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저의 영향도 크다. 전년 동기의 일회성 이익을 제거한 기준으로 실질 영업이익률 하락은 약 3%p대로 추정된다.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36%/47% (YoY) 감소한 467억원/349억원을 기록했다.

고객사들의 생산 둔화가 아쉽지만,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개선

명신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1/3이 현대차/기아, 2/3가 글로벌 EV업체로의 납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들의 생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방 산업수요 둔화로 현대차/기아의 생산 증가율이 낮은 한자릿수로 예상되고, 글로벌 EV업체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24년 매출액/영업이익은 8%/22% 감소한 1.6조원/1,620원(영업이익률 10.1%, -1.9%p)으로 기존 예상치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EV업체의 생산이 2분기를 바닥으로 증가할 것이며, 심원북미의 텍사스 2공장이 하반기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률은 상반기 -12% (YoY)에서 하반기 -4% (YoY)로 개선될 전망이다.

Valuation이 동종업체 수준까지 하락. 외형 성장률 재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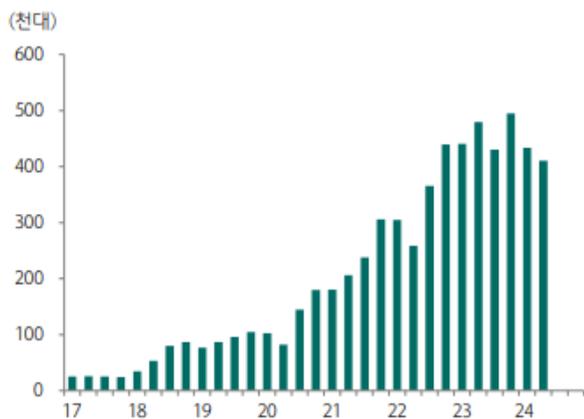
명신산업의 현재 주가는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5배 초반이다. 대형 고객사 2곳의 생산에 연동되는 구조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차체 부품회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적용받았던 이유는, 글로벌 EV업체의 고성장과 함께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 수요의 둔화와 경쟁 심화, 이에 따른 글로벌 EV업체의 생산 감소, 그리고 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실적 및 주가 Valuation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 현재 Valuation이 동종업체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한 바 추가적인 Multiple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방 고객사의 생산 증가 및 추가 아이템의 확보를 통한 성장률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EV업체의 생산 및 텍사스 2공장 의 가동률 상승에 맞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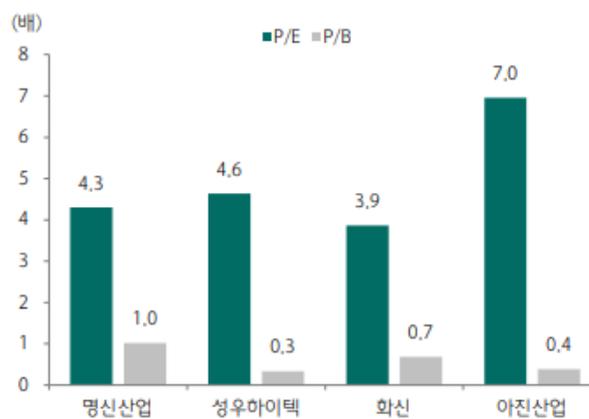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809	1,108	1,515	1,739
영업이익	66	56	127	208
세전이익	(73)	58	123	200
순이익	(89)	45	86	153
EPS	(2,306)	928	1,634	2,909
증감율	적전	흑전	76.1	78.0
PER	(19.8)	32.4	8.8	6.5
PBR	10.9	5.3	2.0	1.9
EV/EBITDA	22.2	20.9	5.5	3.9
ROE	(48.2)	15.3	22.3	28.5
BPS	4,177	5,662	7,315	10,199
DPS	0	0	0	0

도표 2. 글로벌 EV업체의 분기별 생산대수 추이



자료: 글로벌 EV업체, 하나증권

도표 3. 주요 차체 부품업체들의 Valuation 비교



주 1: P/E는 2024년 추정치 기준이 아닌 상반기 순이익의 단순 2배로 계산

주 2: P/B는 2024년 상반기 자본총계 기준으로 계산

자료: 각 사, 하나증권



아모레G

부진 탈출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2024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57억원(-2.4% YoY), 영업이익 122억원(+4.2% YoY)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715억원을 83% 하회하였다.

- ① 아모레퍼시픽: 매출액 9,048억원(-4.3% YoY), 영업이익 42억원(-29.5% YoY)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695억원을 94% 하회하였다. 코스알엑스 제외 시 매출액은 8,208억원(-13.2% YoY), 영업이익은 -210억원(적자전환)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 감소 주요인은 ㉠ 중국 매출 50% YoY 하락(영업적자 370억 원 추정), ㉡ 국내 채널 럭셔리 브랜드 매출이 하락하며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이 35% 감소한 점에 있다. 면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819억원으로 추정된다(국내 매출의 16%). ㉢ 데일리뷰티 부문에서 e커머스와 MBS 등 신성장 채널과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 투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적자전환하였다.
- ② 뷰티 계열사 & 오설록: 주요 자회사 실적은 매출액 1,431억원(-4.2% YoY), 영업이익 77억원(+52% YoY)을 기록하였다.

- 이니스프리: 매출액 585억원(-13.3% YoY), 영업이익 13억원(흑자전환)을 기록했다. 핵심 제품 판매 호조로 MBS 및 순수 국내 e커머스는 성장했으나, 글로벌 e커머스 매출 하락 및 오프라인 로드숍 축소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 효율화 및 오프라인 채널 재정비에 따른 판매부대비 비용 축소로 흑자 전환하였다.

- 에뛰드: 매출액 261억원(-10.6% YoY), 영업이익 9억원(-56% YoY)을 기록했다. GenZ/Alpha 고객 대상 브랜드 소통을 강화하며 MBS 채널 매출은 성장하였으나, 오프라인 로드숍 채널 효율화로 전체 매출은 감소하였다. 오버 글로이 틴트 출시, 인플루언서 협업 확대 등 메이크업 카테고리 내 브랜드 경쟁력 제고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도 감소하였다.

- 오설록: 매출액 221억원(+11.6% YoY), 영업이익 27억원(+247% YoY)을 기록했다. 방문 고객 트래픽 증가로 인한 오프라인 채널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다. 오프라인 매출 성장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도 증가하였다.

동사에 대해 2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3,000원으로 하향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44,950	40,213	46,115	51,110
영업이익	2,719	1,520	2,902	5,700
지배순이익	622	1,193	3,549	3,203
PER	56.1	23.8	5.9	6.5
PBR	1.0	0.9	0.6	0.6
EV/EBITDA	8.9	11.2	6.9	4.3
ROE	1.9	3.6	10.4	8.9



한컴라이프케어

2Q24 Review ; 소방/방산 사업 등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2Q24 Review: 안정적인 매출액 달성과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며, 당사 추정치를 크게 상회함. 매출액 363억원, 영업이익 6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1%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당사 추정치(매출액 359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대비 크게 상회함.

2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것은 안정적 매출 유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수익성이 개선(영업이익률: 2Q23A, 15.1% → 2Q24A, +18.9%, +3.8%p↑)은 더욱 긍정적임. 수익성 개선 이유는 ① 비용절감 극대화 속에서, ② 소방 사업의 가격인상, ③ 현존전력극대화 사업(장갑차 후방카메라 장착건)의 호조 등에 기인함.

3Q24 Preview: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K5 방독면 공급 등으로 안정적 실적 성장 전망. 매출액 270억원, 영업이익 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31.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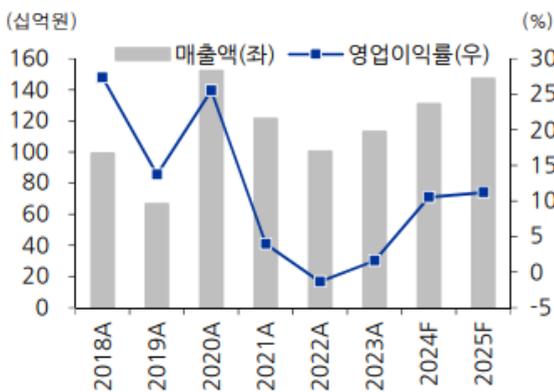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요인은, 2023년 12월에 수주한 K5 방독면 관련 매출이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또한 전기차 화재 진압용 이동식 침수조 장비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임.

현재 주가는 2024년 예상실적 기준 PER 11.2배로, 국내 유사업체 평균 PER 22.9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임

12월 결산(십억원)	2022A	2023A	2024E	2025E
매출액	100.1	112.8	130.7	147.0
영업이익	-1.3	1.8	13.8	16.4
세전손익	13.2	1.6	14.0	15.6
당기순이익	9.3	0.9	10.6	12.3
EPS(원)	333	30	368	406
증감률(%)	90.4	-91.0	1,136.3	10.2
PER(배)	17.6	152.2	11.2	10.1
ROE(%)	7.5	0.6	7.7	7.9
PBR(배)	1.3	1.0	0.8	0.8
EV/EBITDA(배)	18.1	12.3	5.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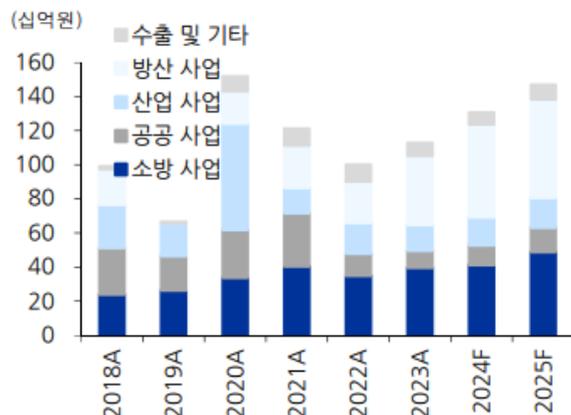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연간 매출,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연간 제품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답노이드

하반기 의료 AI 솔루션 공급 확대가 핵심 요인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2Q24 Review: 분기 최대 매출 기록

딥노이드는 2024년 2분기 매출액 38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수주한 75억원 규모의 2차전지 고객사 향 딥팩토리 매출이 2분기 인식된 영향이며,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향 딥팩토리 매출 또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AI 솔루션 딥뉴로는 비급여 관련 매출이 시작된 것도 판단된다. 영업이익 적자폭이 예상보다 컸던 이유는 1) 2차전지 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하드웨어 비중이 높았으며, 2) 의료AI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적 인력 채용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반기 갈수록 의료AI 공급 확대에 따라 솔루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가율 개선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 주가 상승 트리거는 의료AI 사업 확대

하반기 의료AI 사업 성과에 따라 실적 성장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뇌동맥류 검진 솔루션 '딥뉴로(DEEP:NEURO)'의 비급여 적용 병원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딥뉴로의 도입병원 수는 지난 7월말 기준 23개로 꾸준히 증가중이며, 연내 80개 병원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내년 성장의 주요 요인인 국내 건강검진센터 진입도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검진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CT, MRI, MRA 등의 영상의학검사 건수가 월등히 높으며, 빠른 검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AI 솔루션 도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동사는 액체생검 업체인 진캐스트와 MOU를 체결하며 내년 대형 검진센터 향 AI 영산진단 및 액체생검 ctDNA 진단 패키지 솔루션 공급을 목표하고 있어, 동사의 의료AI 사업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2024년 매출액 145억원, 영업이익 -60억원으로 전망한다. 2025년 매출액 270억원(+86.2%, YoY), 영업이익 70억원(흑전, YoY)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한다. 올해 실적성장은 산업용AI 솔루션 '딥팩토리(DEEP:FACTORY)' 및 '딥시큐리티(DEEP:SECURITY)'가 이끌겠지만, 내년부터는 의료AI 부문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딥팩토리의 경우, 2차전지 향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도 지속 인식될 것이며, 디스플레이 향추가 수주도 하반기 기대할 수 있다. 딥시큐리티의 동남아 공항 향 수주 결과는 3분기 중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보안 업체와의 동남아 항공보안 시장에 솔루션 공급 논의도 지속되는 만큼, 해외 사업 확대도 여전히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	1	3	2
영업이익	(5)	(8)	(6)	(7)
세전이익	(14)	(9)	(5)	(7)
순이익	(14)	(9)	(5)	(7)
EPS	(801)	(470)	(268)	(332)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18.9)	(10.3)	(32.5)
PBR	0.0	12.8	5.5	8.8
EV/EBITDA	0.0	0.0	0.0	0.0
ROE	597.5	(64.4)	(53.5)	(24.8)
BPS	(125)	692	501	1,223
DPS	0	0	0	0



